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5년 12월 15일 | 총권 37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교사독서모임, 작지만 큰 실천

“개학한 첫날은 아이들에게 “틀려도 괜찮아”를 읽어주며 발표나 학습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돕고, 어버이 날에는 “돼지책”을 읽어주고 집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했으며, 동생과 사이가 나쁜 친구에게는 “내 동생”, “피터의 의자”, “내 동생 달로 보내버려” 등의 활동을 한다. “100층짜리 집”을 읽고는 실제로 우리 반 친구들의 집을 그리고 이어 붙여 “30층짜리 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역사를 가르치면서는 “태양의 새 삼족오”를 읽어주었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전래동화 그림책도 읽어주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할 활동으로는 “꽃 할머니”를 읽어준 후 압화 작품 만들기, 희움 팔찌 사기 등 직접적인 활동과 함께 사회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동화홀씨 4기 000)

위 글은 어린이 책을 공부하는 전북교사모임 ‘동화홀씨’에서 활동하는 교사가 생활지도와 수업 등 교육활동에 그림책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일부 사례에 대해 쓴 글이다. 그림책은 다양한 주제를 의미 깊게 다루기 때문에 최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심성계발교과 읽기 부진 아지도, 생활지도 등에 활용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사들은 수업을 하기 위해 어린이 책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직경력 이 10년 정도만 되면 거의 모든 교사가 어린이 책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영국의 독서교육/ 김은하/ 대교출판)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조차 아동문학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어린이 책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은 채 대학을 졸업한다. 그러다보니 학교의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독서단계나 정서적 상황에 맞춘 독서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보여주기 식의 독후활동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사가 좋은 어린이 책 500권 정도만 잘 알고 있어도 학생의 독서단계와 정서 상황에 맞게 책을 권해줄 수 있으며 독서토론, 교과연계수업 등 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사들이 어린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

며 책을 매개로 아이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풀어내게 할 수도 있다.

동화홀씨 활동을 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사들이 달라졌다.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실패를 거듭하던 교사들은 제대로 된 독서지도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림책에서 글뿐 아니라 그림을 새롭고 깊게 보는 눈이 생겼고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책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생각을 함께 나눌 동지를 만났다고 말한다. 동화홀씨 회원들은 실천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주 1권 이상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또한 동화홀씨 공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무하는 학교 안에 교사모임, 학부모 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가입하기 전에는 아침에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정도였는데 가입 이후에는 책을 읽어주는 횟수가 늘었고, 무엇보다 좋은 책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 그 이후에 독서토론이랑, 학부모 독서모임, 지금은 학생 동아리(책탁)랑 교내 교사 그림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에서 하는 사제동행 독서토론도 꾸준히 하고 있다.”(동화홀씨 1기 000)

이러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란도란 책모임> 백화현/우리교육이 큰 도움이 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모임에 연락하여 자세한 공부 방법에 대해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회원들이 협의하여 모임의 방향과 목표, 원칙을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6년은 전국에 수많은 동화홀씨들이 생겨나기를 희망하며 미흡한 글을 적어본다.

성희옥 | 학도넷 공동대표/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대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책읽기모임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박정해 / 김하연 / 이은영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요.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책읽는 일상의 시작 안서초등학교 책임어주기

- 박세지(광명 안서초등학교 사서)



학부모 대상 김지연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안서초등학교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학생수 57명, 교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작은 학교입니다. 주변에는 산과 들로 둘러싸여있고, 학교 앞 그 혼한 문방구나 군것질 가게도 없습니다.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는 한 시간에 고작 1~2대의 대중교통이 전부랍니다.

2011년 안서초등학교에 사서로 첫 근무하게 되어 개교 이래 최초 도서관 개관, 장서 전산화, 다양한 서가 시설 구축 및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은 도서관 개관할 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 책 읽어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책 읽어주기 행위가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가치가 있을까. 혹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다소 회의적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학급 담임들에게 업무 부담 혹은, 수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여러 열정 있는 교사들의 협조와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작은 학급, 작은 학교에서 이 책 날갯짓은 소중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서초에서는 저학년 아동들에게 책임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학년에는 학급 책바구니 배달 책임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특정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동그랑

게 모여앉아 책 읽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책 읽어주는 시간에는 아이들은 눕거나 가장 편한 자세로 즐겁게 들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책임어주기 놀이를 곧잘 합니다. 한 명이 책임어주는 엄마 역할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앉아서 경청합니다. 도서관에 아이들의 또랑또랑한 책임어주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의 글 깨우치는 말놀이 소리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고학년 책 읽기 프로그램은 철저히 담임선생님의 재량과 아이들의 자발성에 맡깁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매달 원하는 도서를 도서관에 문의하면 관련 도서꾸러미를 책바구니에 담아 배달합니다. 처음에는 장기 대여에 따른 도서 분실 및 미납의 문제가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월별 추천도서꾸러미, 주제별 도서꾸러미, 교과수록도서꾸러미, 신간도서꾸러미 등등, 목록을 다양화하여 도서 이용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고학년은 안서초에서 행하는 특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온책읽기로 다가갔습니다. 참고로 안서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학부모님들의 발전기금을 통해 아이들이 읽고 싶은, 혹은 읽히고 싶은 도서를 긴 시간 공을 들여 선정한 후 1인 2권 선물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아이들과의 참고봉사를 통해 희망도서 1권, 담임선생님과 협의를 통해 학급 수업 도서 1권으로 아이들은 총 2

권의 책을 선물 받습니다. 수업용 도서는 교과재구성을 위한 창의독서로 그 학급에서 소중히 쓰입니다. 예로 1학년은 존버닝햄 작품들을 학생수 만큼 사서 돌려읽기를 하였고, 2학년은 진로 탐색을 위한 희망 직업 도서를 선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6학년은 '나무도 읊는다'란 그림책을 가지고 유대인 학살 2차 세계대전의 폐해를 수업하였습니다. 그중 5학년은 창체시간에 "사서와 함께하는 슬로리딩 정약용의 <아버지의 편지> 도서 온책읽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사서선생님과 편지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문답하는 형식입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온책읽기를 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많이 깨닫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임어주기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즐거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책 읽어주는 주체를 다양화시켰습니다. 책 읽어주는 주체가 학부모에서 교사, 고학년 언니 오빠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읽어주기 주체는 바로 교내 고학년 5~6학년이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듬더듬 미숙하더라도, 오히려 선배들의 그런 친근한 모습이 기존 학부모, 선생님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고 아동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011년 도서관 개관하면서 처음 책임어주기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내리사랑 되돌림처럼 어린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지금의 저학년 아이들도 고학년이 되면, 똑같이 책임어주기를 해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책 읽어주기 회원들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때로는 소모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통을 겪고 자라듯 아이들이 행복한 책 읽기라는 초심과 믿음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책 읽어줄 때 아이들의 호기심과 푹푹푹한 눈빛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까지 책 읽어주기를 해오는 가장 귀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의 책 날갯짓이 언젠가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삶의 큰 바람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마칩니다.



책 읽어주는 학부모



책 읽어주는 언니 오빠



2015 고정욱 작가와의 만남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 조영선(왜관중앙초등학교 사서교사)

지난 여름 학도넷 주관으로 마련되었던 <예비텍스트에서 시작하는 과정중심 연극 만들기>라는 연수는 나에게 '문화적 충격?'이었다.

'독서 수업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연극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나의 어린 시절에 이러한 수업이 있었더라면! 연극이라는 것을 접해볼 수 있었다면! 나의 삶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들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최지영 교수님의 지도로 진행되었던 <예비텍스트에서 시작하는 과정중심 연극만들기> 연수는 나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정말로 느낌표가 가득한 연수였다. 잊어버리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5시간의 창체(독서)수업'을 4학년에 적용해보았다. 물론 그 전에 연구할 일들이 많았다. 연극교수님인 최지영 교수님이 의도하신 수업 목표와 나의 목표가 다를 수도 있다. 나는 '독서'에 더 중점을 두고, '책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책을 정말 읽고 싶어지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극의 요소는 학생들의 '창의, 협동, 공감' 능력을 좀 더 기를 수 있도록 곳곳에 사용하였다. 책은 너무도 아끼는 '한밤중 톰의 정원'으로 선정하였다. 평소 학생들에게도 권했던 책인데, 책이 아이들의 호감을 사지는 못했던 책이었다.

<수업목표>

- 연극 놀이로 창의, 협동, 공감 능력 향상
- 책을 정말 정말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

<대상 및 장소>

- 4학년 3학급
- 매주 목요일 1, 2, 3교시 (10월 5주간 운영)
- 장소 : 도서관

<준비과정>

-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에서 예비텍스트 선정하기
- '연극 놀이' 요소를 차시별로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 천 구입
- 막대기 구입

1차시 준비운동

이번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했다. "사서선생님과 어떤 수업을 할 것 같나요? (물어 보고 답을 들은 후) 이번 수업은 '독서, 연극, 놀이'가 함께 하는 수업입니다. 오늘은 독서에 관한 건 '10%만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는 절대로 읽지 마세요."라고 말하니, 아이들이 환호했다.

그동안 '독서해라'라는 이야기만 듣다가, 읽지 마라 하니 아이들의 눈빛이 더 반짝였다.

<감각 열기-연극놀이>

- 참과 거짓 놀이 :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는데 두 가지는 참, 한 가지는 거짓을 적는다. 먼저 짝공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자신의 종이를 보여준다. 나머지 짝공은 어떤 게 거짓인지 맞추어본다. 거짓을 맞출 경우, 맞춘 사람이 이긴 것, 못 맞출 경우 종이를 보여준 학생이 이긴 것 (별표 표시를 종이에 한다.) 짝공과 참, 거짓 놀이를 다 하면, 자유롭게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와 참거짓 놀이를 한다.
- 막대기로 '내가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 모둠별로 앞으로 나온다. 순서를 정해 한 사람씩 막대기를 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맞추어 본다.



<독서 수업>

- 2차시에 사용할 예비텍스트를 몇 가지 읽어주었다. /차라리 이모부가 나를 때리더라도 한다면/ 오오! 톰 정말 미안하구나! 여름방학을 시작부터 망쳐놓아서/ 너한테 말한 건 모두 사실이야. 달혀 있는 문을 뚫고 나간 것도 사실이고/ 열세 번? 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 시계가 정말로 열세 번을 친 걸까?/ 어딘가에 열세시가 있다면?



2차시 예비텍스트로 내용 추측하기

<감각 열기-연극놀이>

- 박수 도미노 : 책을 밀고, 동그랗게 모여앉아 박수도미노로 먼저 시작했다. 먼저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따라했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학생이 먼저 박수를 치게 하여 한 바퀴 돌았다.
- 몸짓 도미노 :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은 몸짓을 따라한다. 박수도미노처럼 그 후엔 원하는 학생이 먼저 시작하고, 시작한 학생이 눈빛을 준 방향으로 한바퀴 돌았다.

<독서 수업>

- 예비텍스트(책의 내용이 1~2줄 적힌 종이)를 한 사람에 한 개씩 뽑아가게 한다. 모둠별로 모여 앉아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해본다. 톰과 해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은지 추측해본다. 추측한 내용 발표

3차시 예비텍스트로 정지 컷으로 표현

점점 독서 부분의 비중이 커진다. 책의 중요 부분을 발췌한 종이(책의 내용이 10~12줄 정도 적힌 것) 모둠별로 뽑는다. 모둠별로 한 장면을 정지컷으로 표현해보았다. 나머지 학생들은 어

떤 장면인지 맞추어본다. 발표한 모듬은 어떤 장면인지 설명한다.



4차시 공간 표현

- 톰의 정원에 있을 것 같은 물건이나 식물 등 종이에 적기
- 톰의 정원 천으로 표현하기
'한밤중 톰의 정원'의 톰과 해티가 놀던 정원을 공간으로 표현하기. 사서교사가 준비한 천과 학생들이 준비물로 가지고 온 손수건, 천을 사용하여 분단별로 정원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책상, 의자, 천만으로도 꾸미도록 하였다.
- 꾸며 놓은 공간에 톰의 정원에 있을 것 같은 것을 적은 종이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이 공간의 제목 정하기
- 발표 및 다른 분단 작품 둘러보고 감상하기

5차시 상상 표현

책의 앞부분을 읽어준다. 활동지 배부 나만의 암호 만들기/ 주인공이 나 톰의 정원 그리기 혹은 정원으로의 초대장 만들기 나만의 암호 발표 등



5차시 창체(독서)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참 행복했다. 아이들도 그러한 것 같았다. 조금은 장난꾸러기인 친구들이 이번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서수업의 목표는 책과 한결음 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연극'이라는 요소를 투입하였더니, 아이들이 더 밝아지고 더 활동적이었으며, 더 책을 읽고 싶어했다.

움직이고 놀았지만, 그러면서도 읽었다.

'예비 텍스트'로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추측하고, 상상하는 일은 아직 긴 책을 읽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장면 추측하기'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기' '장면을 공간으로 꾸미기'와 같은 활동은 협동을 요구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매력적인 '연극'이라는 요소를 '독서'와 함께 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 학도넷에서 주관했던 3일간의 연수로, 학생들과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어 정말로 나도 행복했다.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책임기모임

2015년도에 만들어진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책임기모임은 10여개 출판사들이 각각의 출판사가 기획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그 책이 출간된 맥락과 의미를 찾아보고 청소년출판 트렌드분석과 청소년들이 읽기 좋은 책을 만들고자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김선우 지음 / 양세은 그림 / 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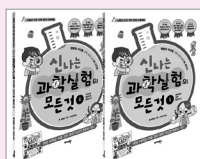
버려진 존재인 바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깨달아 여린 목숨을 보살피는 무조신이 되는 과정을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눈높이를 낮추고, '재미'를 덧붙였다. 생(生)과 죽음, 사랑이라는 삶의 커다란 주제를 소녀 '바리'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궁구하고, 천착하며 아이들 호호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주력했고, 신화가 가지는 판타지성을 극대화해 신화 공간의 육체성을 풍부하게 살려냈다. - 시금치출판사 대표 송영민



사진아 시가 되라

주상태 글 / 리더스가이드 펴냄

이 책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 수업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로서의 시를 받아들인 아이들의 체험을 담았다. 시 쓰기가 어렵지 않고, 시가 삶의 한 모습이며, 누구나 멋진 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논술이나 시험을 위한 글쓰기만 중시하는 교육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삶을 가꾸는 시 쓰기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 철수와영희 대표 박정훈



신나는 과학실험의 모든 것 1, 2

톰 로빈슨 글 / 고아라 옮김 / 미다스북스

『신나는 과학실험의 모든 것 1, 2』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생에게도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또 과학적 사고를 익힐 수 있게 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과학실험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과학실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과학 안내서입니다. - 바다출판사 김한중 팀장



내 멋대로 여행 그림일기

라보아트리에공동체 글 / 이수영 옮김 / 시금치

기차여행이나 버스여행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일까? 달리는 자동차 안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 어떤 반응일까? 여행 가방은 손수 싸 봤니? 여행에서 알게 된 것, 있었던 일은 일기랑 후기에 적어야겠지. 그 모든 걸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콕콕 일러주는 스케치북이 있어. 책 표지로 엽서를 보낼 수도 있지. <내 멋대로 여행 그림일기>를 들고 떠나는 여행, 설리지 않니? -단비 대표 김준연



정의와 변혁을 꿈꾼 50인의 정치 멘토

앤 퍼킨스 글 / 김영 옮김 / 책숲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듯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정치를 잘 알아야 훌륭한 정치가를 선택할 수 있고, 훌륭한 정치가를 선택하면 좋은 정치를 펴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정치적 안목을 기르기 좋은 책!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 - 반니 편집부 배수원



탐정이 된 과학자들

마릴리 피터스 글 / 지여울 옮김 / 다른

지금 이 순간에도 전염병을 소탕하기 위해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는 과학자들이 있다. 바로 전염병학자들이다. 이 책에는 페스트, 에볼라 등 7개 전염병의 비밀을 밝혀낸 전염병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최초 감염자의 정보를 단서 삼아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염 경로, 대처법을 찾는 과정이 추리소설처럼 그려진다. 인류를 지킬 학문으로서 전염병학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 북멘토출판사 편집부 이슬



자유나라 평등나라

오가와 히토시 글 / 서슬기 옮김 / 바다출판사

《자유나라 평등나라》는 자유의 좋은 점과 그것만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반대로 평등의 좋은 점과 그것만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여 준다. 저자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나라와 평등나라의 장단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소녀의 노력을 그린다. - 미다스북스 임호팀장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정수임 글 / 도서출판 북멘토

여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책이 한 권 더 보태졌다. 그런데 보통의 청소년 대상 책들이 추구하는 자기계발이나 진로탐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진 않다는 점에서 앉은 자리가 다르다.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관계, 소통, 불안, 소비, 저항, 생태'를 키워드 삼아 인문학의 본령인 사유와 사색이 갖는 힘을 조근조근 속삭인다. 현직 국어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보고 느끼고 읽고 묻고 답했던 시간들을 풀어낸 인문학 에세이. - 다른출판사 편집부 박윤아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이수정 글 / 홍윤표 그림 / 철수와영희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도 당당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책에 담긴 노동법 내용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업을 마친 뒤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미리 알아야 할 노동인권 관련 실무 가이드와 대안 교과서로 역할을 할 수 있다. - 불어라바람아 이상덕 팀장



꽃과 나무의 사랑 이야기

조콘다 벨리 글 / 바바라 슈타이니츠 그림

김광규 옮김 /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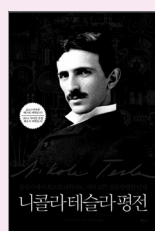
어딘가에 의지해 자라는 덩굴식물 부겐빌레아와 부겐빌레아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소나무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지남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들려준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나침이 없는 함께 어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한다. 어린이가 봐도 좋은 그림책이지만, 어른이 보면 더 좋을 그림책! 글도 그림도 부겐빌레아처럼 예쁜 책이다. - 도토리출판사 편집부 권병재



수진이와 큰개불알꽃

송아주 글 / 김주경 그림 / 도토리출판사

부끄럽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큰개불알꽃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사는 지금은 우리 꽃이 된 귀화식물이라는 것을 참 알았다. 너무 흔해서 그냥 지나치기도 했던 그 꽃이 말이다. 엄마가 베트남에서 와서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까무잡잡한 수진이도 오늘 그냥 지나쳤던 우리 옆집 아이일 뿐이다. 병찬이는 그걸 켈 먼저 알았다. 아이들의 살아있는 얼굴 표정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 책이다. - 한마당 편집부 황정하



니콜라 테슬라 평전

W.버나드 칼슨 저 / 박인용 옮김 / 반니

근엄하게 가르치는 위인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쉽게 만나며 영감을 주는 기발한 친구 같은 테슬라. 과학계 명사로서 뉴욕 사교계를 주름잡고 전기에 관한 환상적인 실연을 통해 수많은 당대 사람들을 매료시킨 과학자. 그를 만나면 과학이 즐겁다! - 책숲 대표 권경미

내가 권하는 책



큰별쌤 최태성의 한눈에 사로잡는 한국사

최태성 지음 / 들녘
2015년 5월 / 532쪽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거운 요즘입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단일화 된 교과서를 만나게 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작년과 올해, 제가 몸담고 있는 출판계에서는 그 반대급부로 다양한 역사책을 선보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난 듯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가치와 관점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복잡해져 버려서 어쩌면 우리는 단일화 된 교과서라는 뉴스를 보며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큰 갈등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독립군들을 다룬 영화 「암살」이 큰 반응을 얻으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역사에 관한 여러 이슈가 한데 겹쳐지며 지도 블로그를 통해 함께 읽어 보면 괜찮을 몇 가지 역사책들과 방송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큰별쌤 최태성의 한눈에 사로잡는 한국사』는 그때 소개했던 책 중 하나입니다. ‘역사’ 하면 제가 만드는 책의 주 독자인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어렵다, 복잡하다, 방대하다는 생각을 쉬이 떠올리게 되지요. 이 책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요즘 같은 겨울철 따뜻한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노란 꿀도 살살 까먹으면서 우리 역사를 편하게 훑어볼 수 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최태성 작가는 실은 수험생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강의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인지 책 모양이 조금은 수험서 같은 느낌도 들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일단 펴 들면 술술 막힘없이 풀어 나가는 역사 이야기 속에 금세 쏙 빠져듭니다. 계백의 5천 결사대는 그야말로 ‘일당백’이었고, 이차돈의 순교는 불교라는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작전’이었으며, 도교의 신선사상은 비틀즈의 ‘Let it be’ 가사로 이해할 수 있다는 등 지금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먼 옛날의 정황을 머릿속에 상상하게 해요. 그래서 내내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올 겨울, 이 책이나 혹은 다른 역사책이라도 한 권쯤 독파해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독립군이자 양심 있는 지식인, 고려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고 김준엽 선생은 또한 역사학자였기에 자신의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겠지요.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정의와 진리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했던 선생의 말씀이 오늘 다시 역사책을 펴 들고 싶게 합니다.

- 최문영(어린이책 편집자)



마당 씨의 식탁

홍연식 지음 / 우리나라비
2015년 5월 / 360쪽

《마당 씨의 식탁》은 작가의 자전적 스토리로 주인공은 40대 가장이자 만화가인 마당 씨이다. 마당 씨는 아내와 한 살 아들을 위해 기꺼이 음식을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먹는 일의 가치를 아는 남자다. 그래서 그는 이유식을 만들고, 동태찌개를 끓이는 일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마당 씨가 만드는 음식의 기원은 어머니의 손맛이다. 마당 씨의 어머니는 단칸방 옆에 딸린 부엌에서 곤로 하나만 놓고도 푹푹푹푹 흐뭇한 밥상을 내었다.

그러나 그렇게 활기차고 손 빠른 어머니는 이제 없다. 평생 전국의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술로 버틴 아버지를 수발하고 그의 분노와 폭력을 견디느라 어머니는 고장난 세탁기처럼 간신히 웅웅거릴 뿐이다. 한 달에 두 번 순환기내과와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타야만 잠을 자고 움직일 수 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은, 마당 씨의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일으킨다. 땅 아래로 계단이 난, 어머니의 반지하 집으로 내려가는 일은 마당 씨에게 고통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그토록 멀어지고 싶었던 세계,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어두컴컴한 부모의 세계와 다시 조우해야 한다.

어린 시절 마당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 전 서둘러 아이들의 저녁상을 내었다. 밥상을 둘러싸고 제비 새끼들 마냥 입을 짹짹 벌리며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자식들을 보는 기쁨과 행복은, 아버지가 집에 등장하는 순간 얼음장처럼 깨져 버릴 테니까.

《마당 씨의 식탁》은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 반도의 가난한 만화가로서, 부모님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마당 씨의 고군분투를 그린다. 마당 씨가 파주 시골 한 귀퉁이에서 아이를 기르고 뒷밭을 가꾸며 아등바등 자신만의 안온한 동지를 꾸리는 동안 어머니는 점점 사그라든다. 병원, 구급차, 응급실, 입원, 퇴원을 몇 차례 지남하게 반복하다가 마침내 어머니는 세상을 뜬다. 남겨진 마당 씨는 어머니가 남겨 준 손맛, 음식, 밥상에 대한 기억을 차분하게, 그러나 뜨겁게 복기한다.

대여점에서 빌려 보는 단행본 만화는 알아도,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를 낯설다. 망토 입고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는 마블 히어로들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마당 씨의 식탁》이 그래픽노블로 분류되는 것을 보니, 나는 이제 그림책을 사랑하듯 한국의 그래픽노블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

- 임정은(그림책·어린이책 작가)



사과씨 공주

제인 레이 지음 / 고혜경 옮김
웅진주니어 / 2007년 10월 / 29쪽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 제인 레이의 그림은 황금색과 어우러진 화려한 색채로 우선 눈길을 끈다. 작가의 사과씨공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가진 공주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사과씨공주는 어떤 생각과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고르게 된 이 책의 표지에는 우리가 기준에 많이 봐 왔던 금발의 미모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가 아닌 짙은 피부빛에 검은 곱슬머리를 가진, 게다가 한 명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공주들이 그려져 있다.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다. 그 왕은 사랑하는 왕비를 잃고 슬픔에 빠져 나라를 보살피지 않아 나라는 황폐해 진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이 왕에게는 세 딸이 있다. 왕비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기억 할 수 있도록 딸들에게 자기의 물건들 중 하나씩을 고르게 한다. 여러 가지 물건들 중 굵이 높은 아름다운 구두를 고른 첫째 딸,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는 화려한 장식이 달린 거울을 고른 둘째 딸, 그리고 씨앗을 포함한 신비로운 일곱 가지 물건이 든 나무상자를 고른 셋째 딸. 왕은 이 세 딸들에게 일주일동안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만든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말한다. 일주일동안 세 딸은 각자 뭔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고 싶은 첫째 공주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사랑받고 싶은 둘째공주는 나라의 물건들을 끌어 모아 각자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만든다. 셋째 공주는 엄마가 남겨 주신 씨앗을 사람들과 같이 심기 시작한다.칠일 후에 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탑을 쌓는 두 공주들처럼. 그만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을 성장시키기에 훌륭한 동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동화는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보여주는 것 같다. 조그만 씨앗이 자라 황폐한 나라를 천천히 초록색으로 변화시키는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감동을 준다. 제인 레이는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가로 화려하고 풍부한 색채 속에 세상에 대한 세심한 사랑을 담아둔다. 책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그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아름다운 그림 속에 물질적 가치보다 생명의 힘을 중시하고, 사소한 것처럼 작고 힘없는 사람이 커다란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있는 이 책은 언제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로 꼽게 된다.

- 신미숙(책모임 '빵과 그림책')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내딛는 책 읽기를 꿈꾸며

박정해(서울 양동중학교 국어교사)

요즘 아이들은 바쁘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서 또 한참을 문제집을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다 잠시라도 짬이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거나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허기진 마음을 달랠다. 도저히 책이 끼어들 틈이 없다. 책이 줄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 다른 세상과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할 기회 등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 아이들이 쉽게 경험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책을 읽게 하고 독후활동으로 독후감 쓰거나 독서 퀴즈대회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책 읽기의 즐거움을 뺏고 책을 또 하나의 과제로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페낙의 <소설처럼>에서 말하는 '책을 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올 한 해 중학교 국어교사인 나는 사서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열심히 궁리를 했다.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책 읽기도 함께 하면 덜 힘들고 재미있다. 학년 초에 열심히 공들여서 하는 일이 함께 책 읽는 독서동아리를 모으는 일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단위에서도 동아리를 만든다. 교사와 학부모는 일단 동아리를 만들면 자체 동력으로 잘 유지되는 편이다. 학생 독서동아리는 지도하는 교사가 좀 더 품을 들여야 유지된다.

먼저 마음 맞고 시간 되는 친구들을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은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기본이 되는 인원은 4명인데 어찌 하다 보면 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활동이 잘 안 됐다. 같은 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함께 모이는 시간을 정하기도 힘들어서이다. 2명인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될까 걱정이 돼서 인원을 더 모아보라고 권해 보았지만 힘들어 하길래 일단 들어서 시작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의외로 2명에서 하는 동아리가 유지가 잘되기도 한다. 함께 읽을 책을 구하기도 쉽고, 약속 잡기도 쉬워서 인원이 많은 동아리보다 결속력이 높다. 물론 넓고 다양한 사고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비슷한 친구끼리는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다른 친구들끼리

는 서로의 멘토가 되어가며 혼자보다는 함께가 되어 간다.

동아리가 구성된 후 교사가 동아리 연간활동계획서 세우는 일과 첫 번째 토론을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몫이다. 올해에는 15회, 900분 이상 활동해야 자율동아리로 생활기록부에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독서동아리 일지에 활동 시간 누가기록부를 만들어 주었더니 스스로 활동 시간도 잘 확보하고 동아리 일지도 열심히 쓴다. 초반에는 교사가 추천해 준 책을 주로 읽더니 후반에는 자기들이 고른 책을 많이 읽는다.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이 생겼다. 동아리 친구들의 독서 수준이 다 다른데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수준 조절을 잘한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안다. 물론 중간에 흐지부지하다가 동아리가 와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이 잘되는 동아리는 학년말까지 계속 되고 그 다음 해까지도 계속 유지된다. 학년 초 15개 동아리, 57명으로 시작한 동아리가 학년 말에 11개 동아리, 39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체 학생이 1,000명 정도 되는 규모에서 39명은 참작은 수이다. 이 좋은 걸 어떻게 더 확대해 볼까 욕심이 나기도 하지만 이내 꼭 참는다. 더디더라도 독서동아리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학생들을 책의 세계로 유혹한다. 도서관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달마다 크거나 작은 행사를 벌인다. '행운권 추첨, 한 줄 서평 쓰기, 사랑의 엽서 쓰기, 책갈피 만들기, 책 속의 보물찾기, 책 제목으로 피라미드 만들기, 책 이름으로 다행시 짓기, 문학기행,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500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책 읽기는 괴로운 숙제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인 것이다.

사서 선생님은 이 외에도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과 함께 방과 후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어 선생님들은 권장도서 15권을 정해두고 그중 5권을 택해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방식이거나, 자신이 읽고 싶은 책 5권을 정해 1년 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방식 등으로 수업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책 읽기를 지도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우리 학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생회와 함께 '책 읽는 학급, 책 읽는 학교'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해 볼까 궁리중이다.

이는 어찌 보면 들이는 품에 비해 효과가 덜 나타나는 방식일 수 있다. 전교생이 아침독서를 하게 한다면, 전교생이 필독서나 윤독서를 읽게 하는 방식이 눈에 보이는 효과는 뛰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는 방식이고, 자발적으로 책을 찾아 읽게 하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 방식이다. 학생들

이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내딛으면서 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난 궁리중이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빨강

김하연(영경중학교 3학년)

빨강 하면 떠오르는 것은 '뜨거운 것', '정열', '열정' 등이다. 빨강은 참 강한 색이다. 어찌보면 살짝은 '야한' 색이기도 하다. 영화를 보면 항상 유혹을 하는 여자들은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나온다.

빨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빨간 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보자마자 19금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 그리고 강렬한 색이니만큼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떠오른다. 우리나라 태극전사의 색도 빨강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색을 '빨강'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정말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자신들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그 열정이 자랑스럽다.

어렸을 때 나는 '빨강'하면 바로 '사과'가 떠올랐다. 사과는 무조건 빨강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오리 사과를 맛보게 되었다. 나는 아오리 사과가 그냥 덜 익은 건줄 알았다. 그때 당시에 사과가 초록일 수도 있다는 것은 나에게 꽤 신선한 충격이었다.

'빨강'하면 코피가 떠오르기도 한다. 나는 6학년때까지 한번도 코피를 흘린 적이 없었다. 너무 튼튼해서 보건실에 가고 싶어 징징대기도 했었다. 반면에 내 주변 친구들은 학교수업시간에 갑자기 코에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보건실에 자주 가기도 했다. 나는 정말 코피를 흘리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집에서 미친 듯이 코를 찌던 기억도 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책 위에 빨간 핏물이 푹 떨어졌다. 그리고 코가 뜨거웠다. 나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뒤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하지만 기본이 좋았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이니깐…….

그냥 빨간 물체를 설명할 방법은 역시 '뜨거운 색' 가진 물체이다. '뜨겁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말이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아이들에게 보내는 신나는 초대장

이은영(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사)

내가 한창 좋은 교사를 꿈꾸며 대학 생활을 할 때,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셨다. 과제와 시험에 치여 바쁜 나날이었지만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 지면서 이야기에 빠져든 기억이 난다. 그 때 나는 교사가 되어서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나는 2005년 3월 첫 제자들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간은 나에게도 많은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난 날 읽어주는 책은 『마녀 위니』(밸러리 토마스 글, 코키 폴 그림, 비룡소)이다. 온통 까만색 집에서 살던 마녀 위니가 고양이 울버를 위해 큰 결심을 하는 내용인데, 이 책을 읽어준 후 상대방의 다른 점을 바꾸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첫 만남을 연다. 그 후 3월 중순까지는 짧은 그림책을 위주로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어주고, 『책 속에 들어간 아이들』(크리스틴 몰리나 글, 중앙출판사)을 읽어준 후에는 글 밥이 많은 책들도 읽어준다. 그림책의 경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읽고, 동화책의 경우 눈을 감거나 옆드려거나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한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은 주로 내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나, 내용이 좋아서 꼭 나누고 싶은 책,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책을 고른다. 예전에는 교사 특유의 사명감으로 교훈과 감동이 담긴 책을 열심히 골라서 읽어줬지만, 아이들은 단박에 나의 흑심을 알아채고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책을 골라 조심스럽게 소개한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급 전체가 도서관에 가는데, 그 때가 주로 내가 아이들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는 시간이다. 매일 책을 읽어주고 매 주 도서관에서 읽어줄 책을 고르는 나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이 고른 책을 보여주며 읽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책은 ○○이가 읽어달라고 부탁한 책이에요.”라고 소개한 후 책을 읽어주고, 다 읽고 난 후에 반 친구들이 모두 “○○아, 좋은 책을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인사한다.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새 소식’ 시간에 자신이 읽은 책 중 재미있었던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수시로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줄 시간을 달라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난다. 내가 목이 아파서 책을 못 읽어줄 것 같은 날에는 대기자 중 한 명에게 부탁을 하면 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관련 있는 책을 소개하면, 다음 날 더 많은 책을 찾아와서 소개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읽어준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구입하여 자랑스레 보여주며 “이 책 선생님이 지난번에 읽어 주셨던 책이에요.”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생긴다.

짐 트렐리즈의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북라인)에 따르면 0세에서 만 14세까지는 듣기 수준이 읽기 수준보다 높으며 14세 무렵이 되어서야 두 수준이 비슷하게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즉 혼자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책을 누군가가 읽어주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27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좋다, 8명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답변했고 2명의 학생이 응답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쓴 이유는 아래와 같다.

<좋은 이유>

-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책을 소개 받을 수 있어서
- 재미있게 잘 읽어주셔서
- 책이 재미있어서
- 내가 읽지 않은 책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서

-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서
- 지식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 즐거워지고 책을 들으면서 조금 쉴 수 있고 마음이 편해져서
- 듣기만 해도 책을 읽은 것처럼 느껴져서
- 책을 보거나 듣는 것이 좋아서
- 친구들과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흥미롭기 때문에

<보통인 이유>

-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것은 재미있는데 내가 읽는 것은 재미없어서
- 읽어주면 좋고 안 읽어줘도 괜찮아서
- 가끔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책을 읽어주는 시간에 나 혼자 책을 읽고 싶을 때가 있어서
-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지 못해서

지난 1학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2주에 한 번씩 그림책 연극 수업을 했다. 그림책 한 권을 고르고 주제와 관련된 연극 놀이로 수업을 열고 책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읽어준 후 교육연극 활동을 해 보았다. 많은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올 해 했던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도 시도해보려고 한다.

비록 올 해에는 중간에 멈춰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매달 읽어준 책을 달력에 기록하여 두고 그 자료를 학생, 학부모님과 나누어 보려고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읽어준 책의 서평과 학생들의 반응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아이들과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새 학년에서 새 선생님을 만나 새 친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이들이, 나는 잊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책 속 여행을 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았던 기억을 간직하기를 기대한다. 책 읽어주는 신나는 책 속 여행으로의 초대장이다.

청소년 테마 소설 청소년들의 고민, 다섯 가지 테마로 탐구하다



이는 척하지만 존재의 아우성 김민령 이금이 전삼혜 진형민 최상희 최서경 최영희

순진한 새끼. 사기 안 치고 자기소개서 쓴 애들이 몇이나 될 거 같냐? 만 애들도 다 똑같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중독의 농도 김민령 김봉래 김학찬 송미경 오문세 장은선 전삼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은 언제나 어긋나는 법이다.



일잡아, 복잡하게 관계의 온도

김리리 김민령 김이윤 김재성 은이정 이금이 이제미
2014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교양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물라, 어떻게든 되겠지 내일의 무게

김학찬 김해원 오문세 장주식 전삼혜 정연철 최서경

말해, 아프다고 콤플렉스의 밀도

고재현 김혜정 방미진 송미경 이경혜 이진 홍영진

학도넷 소식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5년 9월 8일 삶을 위한 인문학
- 2015년 9월 15일 소식지 가을호 발행(총권 36호)
- 2015년 10월 3일 만남과 바람 “관동대로 옛길, 구둔치고개 순례”
- 2015년 11월 14일 만남과 바람 “섬진강 기행”
- 2015년 11월 14일 2015 학도넷 '함께 읽는 즐거움' 사례 공모

신입회원 (2015년 9~11월)

정회원 : 이학수 정명하 유은실 이기영

준회원 : 이원담 안희숙

웹회원 : 살림어린이 황진 이은영 홍용란 노옥금 백금희 이은영 김화영 황수정 바이예두

회비 및 후원내역 (2015년 9~11월)

정회원 회비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구미숙 권도경 길미숙 김경숙 (보령) 김대경 김선영 김심환 김영신 김은영 김정운 김정혜 김하나 김호숙 박미영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변영이 선보배 성주영 송경영 송숙영 송추향 송혜영 신은미 신정화 신형란 유서연 유정원 윤남미 이수연 이유정 이찬미 이 현 이현애 임민욱 정수연 정영희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선옥 허지연 허지은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종성 김진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생 박영옥 박정혜 박지연 백화현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문숙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랑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연회비 : 김진희(12만)

준회원 회비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승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재희(2천) 장벼리(3천) 장한솔(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인세후원 : 돌무더기(고래가숨쉬는도서관) 안재희(12만)

광고후원 : 소식지 가을호 고래가숨쉬는도서관(50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안전, 어디까지 아니?(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용후아, 도서관 가져(생각하는 책상)/아기돼지와 자전거 달님(북극곰)/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이야기(철수와 영희)/10대와 통하는 옛이야기(철수와 영희)/우리 이렇게 놀아요(놀래/소나무)/한땀한땀 어린 손바느질(김리경)/꼬물꼬물 손끝놀이 처음하는 어린이 손바느질(김리경)/우리마을 도서관에 와 볼래?(사계절, 유은실)/고재는 알고 있다/나는 그냥 나예요/산골 도서관의 고구마 학교(낮은산)/인어의 노래(비룡소)/IS 분쟁전문기자 하영식, IS를 말하다(불어라 바람아)/행복하다는 건 뭘까?(미세기)/동물과 식물 이름에 이런 뜻이?(철수와 영희/사랑하는 안드레아(양철북)/그림책 독후활동(리더스가이드)/곰곰아, , 관찰야?(북극곰)/크리스마스 선물(북극곰)/김명호의 생물학 공방(사이언스 북스)/키자니아 직업탐험대 1권, 과학은 쉽다! 3권 끝내주는 우리 몸(비룡소)/처음 만나는 직업책2(미세기)/고양이가면 벗어놓고 사자가면 벗어놓고, 칭얼대는 파도, 심심하지 않을거야, 방과후 탐정교실(청개구리)/평화의 돌(도토리숲)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가을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어린이문화연대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삶을 위한 인문학 시작’ 6강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 주관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 후원 : 도서문화재단 ‘씨앗’
- 때 : 2015년 9월 8일(화)~11월 24일(화) (격주 화요일, 18:30~21:30)
- 곳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강의실(서울 4호선 혜화역 인근)

학도넷 10월 만남과 바람 다녀왔습니다.

‘관동대로 옛길, 구둔치고개순례’

한양에서 강원도로 향하던 옛길, 관동대로!

그 첫 번째 고개 구둔치를 다녀왔습니다.

가을 해사라기 주으며 그 길을 지나다녔을 옛사람들 이야기로 되짚어 보며 다녀왔습니다.

· 다녀온 곳 : 일신역(양평군 지평면)→구둔역(폐역)→곰꾸는 숲 →구둔치 고개→주막터

· 때 : 2015년 10월 3일(토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7시)

학도넷 11월 만남과 바람 다녀왔습니다.

‘섬진강 문학기행’

영화 ‘아름다운 시절’로 만났던 구담마을의 아름다운 강 언덕을 시작으로 옛 천담분교가 있던 천담마을을 지나 시인이 천국의 길이라고 했던 천담에서 진메로 가는 그 강 길을 가을 해사라기 주으며 걸어서 진메마을 시인의 고향집에 모여 김용택 선생님에게 고향이야기, 강이야기, 시이야기를 들으며 다녀왔습니다.

· 다녀온 곳 : 전북 임실군 덕치면 구담마을→천담마을→진메마을(김용택 선생님과 만남)

· 때 : 2015년 11월 14일(토요일)

2015 학도넷 ‘함께 읽는 즐거움’ 사례공모 선정 발표

학도넷에서 실시한 2015년도 책읽어주기 사례공모 결과를 발표합니다. 짧은 모집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학교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서, 마을 놀이터에서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책읽어주기를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사례가 모였습니다.

이번 사례공모에는 초임 발령 때부터 시작해 10년이 넘게 교실에서 책을 읽어주고 계신 선생님,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편한 자세로 앉아있어’ 하고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도서관 학생들과 함께 공원에서 동네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어르신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지도하고 계시는 사서선생님, 손자의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할머니, 바쁜 시간 중에도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가슴 뜨거운 사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조선족중학교에서도 반가운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례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주면서 느끼는 가슴 벅찬 경험들은 더욱 컸으리라 봅니다. 이번 사례공모 심사기준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얼마나 지속하고 있는지, 책읽어주기로 아름다운 결연을 실천한 사례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시상식과 이야기마당은 12월 16일 ‘학도넷 후원의 밤’에서 진행합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보람상(상장액자와 책읽어주는 의자)

- 광명 안서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높은학년 학생
- 대구 대진중학교 도서부 클랑, 사서 이금주,
- 서울 반원초등학교 교사 이태숙
- 수원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사 이은영과 학생들
-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조선족중학교 교사 안태련(교원, 학생, 학부모)

청주 양청중학교 사서교사 이영선(교사, 도서관 학생들)

▶나눔상(상장액자와 좋은책 20권)

부천 계남초등학교 학부모 임수미, 교사 안용덕

부천 소사초등학교 책사랑어머니회 전숙연

수원 지동초등학교 사서 염효경, 학부모도서관

인천 강화초등학교 할머니 정선애

춘천 소양초등학교 학부모 허남정

화성 행정초등학교 책사랑회학부모 오경화

〈발표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2015 학도넷 <후원의 밤> 합니다.

학도넷이 열두 번째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도서관에서 애쓰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2015년을 갈무리하고 2016년을 맞이해보려 합니다. 부디 귀한 걸음 하시어 서로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는 자리만 들어 보아요.

·언제 : 2015년 12월 16일(수요일) (오후 5시~10시까지)

·어디서 : 마리스타교육사회 교육관 강당(합정역 2호선, 6호선 7번 출구)

2015 학도넷 겨울사서 연수합니다.

서평연수 <읽고 생각하고 쓴다>

1월 11일(월)	1월 12일(화)	1월 13일(수)
동화 읽기	그림책 읽기	지식책 읽기
어린이 책을 보는 관점(강사 : 조월레)	그림책 깊게 읽기 (강사 : 김혜진)	지식책을 만드는 과정 (강사 : 이우만)
맛있는 점심	맛있는 점심	
동화 서평 쓰기에서 짚어야 할 점 (강사 : 김혜원)	동화 서평 쓰기에서 짚어야 할 점 (강사 : 김혜원)	맛있는 점심 (1~2시)
휴식과 간식	휴식과 간식	합평 1(2~3시) 동화 서평 (진행 : 김혜원)
이미 읽어온 동화에 대한 토론 (진행 : 조월레)	이미 읽어 온 그림책에 대한 토론 (진행 : 김혜진)	합평 2(3~4시) 그림책 서평 (진행 : 김혜진)
발표 및 정리	발표 및 정리	발표 및 정리(4~5시)

·강사

조월레(어린이책 비평가, 경민대학교 교수)

김혜원(어린이책 비평가, 학교도서관 저널 신간선정위원)

김혜진(어린이책 비평가, 학교도서관 저널 신간선정위원),

이우만(그림책 작가, <창릉천에서 물총새를 만났어요>, <술부영이 아저씨가 들려주는 뒷산의 새 이야기> 외 다수)

·때 : 2016년 1월 11일(월)~13일(수) (3일간, 10:00~17:00)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2호선 강남역)

·공동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참가비 : 10만원 / 학도넷 정회비를 내는 회원 9만원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